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지난 5일, 전남대 국악학과 성심은 교수 연구실에서 듣는 가야금 산조 가락은 아름다웠다. 느린 진양조 가락은 가슴을 울리고, 빠르게 몰아치는 휘모리 가락은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이날 연주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 12줄 가야금과 함께 또 하나의 악기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나갔다. 바이올린이었다. 두 악기의 어울림은 색다른 느낌을 줬다.

오는 8일 오후 7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독주회를 갖는 성교수는 가야금과 함께 바이올린을 이번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삼았다.

성심은 독주회, 양새미 협연
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듬 변화 많은 정통 산조
악보에 충실한 서양악기
독특하면서 아름다워

가야금과 서양악기의 협연은 요즘에는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공연 프로그램 전체를 국악기와 양악기로 꾸미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현대 국악곡이나 서양 음악이 아니라, 정통 가야금산조와 정악곡을 연주하는 음악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교수와 함께 무대에 서는 이는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씨다. 두 사람은 5년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함께 연주하는 거라 힘든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 줘서 진작 고맙죠. 지금까지 첼로, 플루트 등 서양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바이올린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맛을 느껴요. 정통 산조 가락을 함께 연주하면서는 많은 공부도 되구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바이올린과 가야금이 어우러진 공연을 함께 준비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왼쪽)씨와 가야금연주자 성심은 전남대 교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만남 신비롭고 완벽한 화음 기대하세요

전 '은하수'라는 곡으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나 15년만에 막 귀국한 양씨에게 당시 가야금과의 협연은 낯설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5년전에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막 들어온데다 국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우리음악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죠. 지금은 조금 귀가 트인 것 같은데 아직도 별었죠. 뭐, 선생님 이 잘 이끌어주시니까 즐겁게 연습하고 있었어요. 우리 음악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도 참 좋구요."(양새미)

"제가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양선생님에게 함께 하자고 했어요. 한 두곡이

가는 과정들이 참 즐겁습니다."(성심은) 성교수는 이번 연주회의 제목을 '초심(初心)& 초연(初演)'으로 잡고 레퍼토리를 골랐다. '초심'은 처음 가야금을 배웠을 때 연주하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마음이다. '김죽과류 가야금산조'와 '천년만세' 등 우리 전통국악곡이 레퍼토리다. '초연'은 작곡가에게 위촉의뢰해 받은 곡을 자신이 처음 연주했던 곡들로 황의중 곡 '은하수'와 이성천 곡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3편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야금 산조'와 '천년만세' 등 정악곡을 서양악기와 협연하는 건 새로운 도전이다. 성 교수가 직접 기본적인 편곡을 했고, 바이올리니스트 양씨가 자신의

연주 스타일에 맞게 보완했다. "우리 정통 산조는 곡 한바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템포가 점점 빨라지고 리듬의 변화도 많아요. 반면 서양악기들은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가지 소리가 서로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맞춰보니 독특한 맛이 나오. 특히 바이올린의 카덴자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워요."(성심은)

성교수는 이번 독주회에서 산조가야금과 법금(정악가야금), 철가야금, 다현금

등 다양한 가야금으로 연주한다.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각각의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어울림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기대가 크다.

성교수는 내년에는 산조 전바탕을 구음과 함께 들려줄 계획이며 2014년에는 역시 산조 전바탕을 무용과 함께 꾸미는 기획을 준비중이다.

양씨는 12월에 개인 독주회를 개최하며 단장을 맡고 있는 음악 그룹 루미나시아와 모나무르오케스트라의 연주회도 계획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의 여행'

최재영 초대전 8~17일 예향갤러리

아이들만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의 눈을 통해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수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서양화가 최재영씨가 오는 8일~17일 광주 예향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자연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 선사한다. 밝은 색채로 표현한 자연과 대비되도록,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인형 처럼 표현된 작품이다. 순수로 대표되는 아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작품 속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들거나 고급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등 어른들의 행동과 닮아 있다.

그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슬레이드 예술대학과 윈스턴 예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광주, 서울, 런던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유럽,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지의 국제 아트페어와 기



'Fall travel'

회 초대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4-405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품 속에 작가의 '심경' 고스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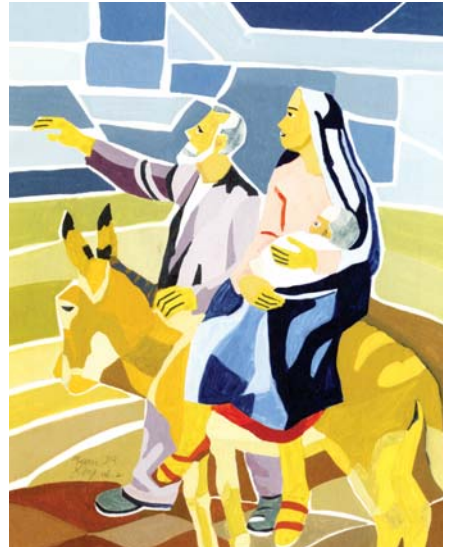
양문자 개인전 8~14일 무등갤러리

양문자씨가 8일부터 14일까지 무등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심경'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양씨가 교직을 떠난 이후 10년 넘게 작업한 성과를 발표하는 첫 개인 전시회로, "그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는 작가의 열정이 묻어낸 8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작가는 흔히 보고 아는 일상적 대상이나 종교적인 메시지를 다양한 재료와 장르로 표현해내고 있다. 얼핏 잡동사니 같아 보이는 단추나 나무 주걱 등 일상생활 속 수집품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면서 '작가와 느낌을 나눌'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했다. '바보 김수환 추기경', '마더 데레사' 등의 작품은 천주교 신자인 작가의 종교에 대한 '심경'도 엿볼 수 있다.

광주교육대학교를 거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1999년 명예퇴직한 양씨는 봉선동에 작업실을 내고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고



'피신길'

있다. 문의 062-236-252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재창

트럼펫, 감성을 깨운다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9일 문예회관 소극장

'하이든과 트럼펫' 광주시향교향악단은 '디스커버리 하이든'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부지휘자 임흥규씨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연주회에서는 하이든의 '교향곡 제88

번'과 '교향곡 104번 런던', '트럼펫 협주곡' 등을 들려준다. 트럼펫 협연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귀한 무대다. 협연자로 나서는 성재창(충남대 예술대학 교수)씨는 서울대와 문헌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니, 핀란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춘' 직장인·청소년 극단 단원 모집

지난 1989년에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청춘'이 직장인 극단과 청소년 극단 단원을 모집한다. 지난해 말 창단한 직장인 극단 '더 씨어터 블루'(가칭)는 20~30대 직장인(대학생 제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5월 창단한 청소년 극단 '청연'은 만15세~19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말 워크숍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두 극단 모두 주1~2회 연습을 진행하며 2회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집 마감은 오는 4월2일까지며 입단신청서를 이메일(cctheater@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